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1월 8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기고] 2024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도전-14면(김창윤)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뉴제주일보
○ [기고] 2024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도전-15면(김창윤)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신문
○ [기고] 2024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도전-14면(김창윤)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기고] 성공 농업을 위한 출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여로부터-14면(김윤정)	서부농업기술센터	뉴제주일보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6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신문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6면	기술지원조정과	한라일보
○ 노지감귤 가격 오름세... 월동채소 '고전' -6면	-	한라일보
○ 겨울감자 수확-4면	-	뉴제주일보

(뉴제주일보: 2024년 1월 8일)

○ [기고] 2024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도전-14면

2024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도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서귀포농업 기술센터는 청룡의 기운으로 지난해에 이어 보다 새롭고 역동적인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도, JTP, 업체와 협업해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에너지저장장치)'를 개발한 것에 이어 일반농가 10개소에서 무정전 장치 실증 시험을 추진 하고 있다. 보통의 비상발전기는 단전 시 약 10여 초 후 비상 전기가 공급되는데, 무정전 장치는 정전과 동시에 전기 공급 이 가능하다.

키위 농가의 경영비 부담 1순위는 대부분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는 화분 증량제 '석송자'일 것이다. 요소수처럼 석 송자 파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송자 대체 물질을 찾고 있는데 지난해 1차 실증 시험에서 '비트' 분말을 선정했으며 올해 2차 실증 시험에 매진 할 계획이다. 비트는 고유의 붉은색으로 석송자처럼 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



김창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

어 중복 수정을 피 할 수 있다. 이 실증 시험이 성공할 경우 도내 4억원가량의 자금 유출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열대 과수역시 새로운 재배 기술 개발에 힘쓸 계획이

다. 저수고 재배에 의존하는 망고 재배에 서는 2단 재배, 다축(多軸)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와 합 께 파파야 열매 규격화, 잭프루트 재배 기술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최근 각 처에서 개발 중인 감귤 로 봇 수확기계 개발에 발맞춰 수확 로봇 맞춤형 감귤나무 수형 개발, 하우스 토 양의 EC개선을 위한 실증, 비료 사용량 저감을 위한 관수·관비 시범, 만감류 정 예 농가 육성과 더불어 15분 1.8. 농기 계 임대사업도 확대하고 뉴제주일보 14

(제주신문: 2024년 1월 8일)

○ [기고] 2024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도전-15면

2024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도전



김창운
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기술센터

2024년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보다 새롭고 역동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도 JTP, 업체와 협업해 ‘사용 후 배터리를 활

용한 ESS(에너지저장장치)’를 개발한 것에 이어 일반농가 10곳에서 무정전 장치 실증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의 비상발전기는 단전 시 약 10여 초 후 비상 전기가 공급되는데, 무정전 장치는 정전과 동시에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저장된 전기는 평상시에 일반 전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발전기에 비해 사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함께 무정전 장치를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간단한 착용만으로 물건을 가볍게 들 수 있는 ‘웨어러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협

의도 해 나아갈 방침이다.

키위 농가의 경영비 부담 1순위는 대부분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는 화분 증량제 ‘석송자’일 것이다. 요소수 파동처럼 석송자 파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송자를 대체할 물질을 찾고 있는데 지난해 1차 실증 시험에서 ‘비트’ 분말을 선정했으며 올해 2차 실증 시험에 매진할 계획이다.

아열대 과수 역시 새로운 재배 기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저수고 재배에 의존하는 망고 재배에서는 2단 재배, 다축(多軸)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와 함께 파파야 열매 규격화, 잭프루트 재배 기술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각 처에서 개발 중인 감귤 로봇 수확기계 개발에 발맞춰 수확 로봇 맞춤형 감귤나무 수형 개발, 하우스 토양의 EC개선을 위한 실증, 비료 사용량 저감을 위한 관수관비 시범, 만감류 정예 농가 육성 과 더불어 15분 거리 농기계1.8. 대사업도 확대하고자 한다. 제주신문 15

(제주일보: 2024년 1월 8일)

○ [기고] 2024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도전-14면

2024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도전



나의 의견

김창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푸른 용의 기운처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다 더 새롭고 역동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JTP·업체 등과 협업해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한 데 이어 일반 농가 10개소에서 무정전 장치 실증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의 비상 발전기는 단전 시 약 10여 초 후 비상 전기가 공급되는데, 무정전 장치는 정전과 동시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 스마트팜에 적용했을 때 단전돼도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고온 피해를 막고, 일상에서도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요소수처럼 대부분 중국산 수입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키워농가의 경영비 부담 1순위로 꼽히는 화분 증량제 '석송자'를 대체할 물질을 찾고 있다. 지난해 1차 실증 시험에서 '비트' 분말을 선정됐는데 올해에는 2차 실증 시험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어 아열대 과수의 새로운 재배 기술 개발에 힘써 망고 재배에 있어 2단 재배, 다축(多軸)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와 함께 파파야 열매 규격화, 잭프루트 재배 기술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감귤 로봇 수확기계 개발에 발맞춰 맞춤형 감귤나무 수형 개발, 하우스 토양의 EC개선을 위한 실증 사업 등으로 서귀포지역 농업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기술 확장에도 힘써 농업인을 위한 도전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1.8. 제주일보 14**

(뉴제주일보: 2024년 1월 8일)

○ [기고] 성공 농업을 위한 출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여로부터-14면

성공 농업을 위한 출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여로부터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았다.
예부터 청룡은 동쪽을 수호하는 신성한 동물로 창조, 생명, 신생을 의미하며 힘차고 진취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활기찬 희망으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일 년의 계획을 설계하고 수립해야 할 이 시기에 맞춰 우리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설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16회 835명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969년 '겨울농민교육'으로 시작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시대별로 우리 농업의 변화상을 반영하며 매해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한 해의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특히 지난해 영농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 도출로 현안 과제를



김윤정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장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소통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어 왔다.

올해에도 달라지는 농정시책, 농업기술원 연구개발 성과 및 2024년 중점 추진방향,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와 더불어 서부지역 소득작목인 마늘, 양파, 양채류, 단호박, 만감류, 노지감귤 등 8개 작목에 대한 핵심 실천기술 중심으로 실질적인 농업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했다.

갑진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한 희망적인 농업 설계로 승천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보자. 농업인 스스로가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미래의 꿈을 이뤄나가기 위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8.과** **뉴제주일보 14**

(제주매일: 2024년 1월 8일)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9면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49개 사업
 - 센터별 사업 및 개소수가 상이하므로 상세 내역 확인 필요
- 신청기간: 2024. 1. 2. ~ 1. 31.(30일간)
- 신청방법
 - 방 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우 편: 원본 서류를 동봉해 우편 발송(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이메일: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 발송(현장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 필, 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ju.go.kr>) 참고

[문의]

제주농업기술센터 760-7711~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760-7811~3

동부농업기술센터 760-7611~3 서부농업기술센터 760-7911~3

1.8.

제주매일 9

(제주신문: 2024년 1월 8일)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6면

제출 필, 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ju.go.kr>) 참고

□ 문의 : 제주농업기술센터 760-7711~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760-7811~3

동부농업기술센터 760-7611~3

1.8.

서부농업기술센터 760-7911~3 제주신문 6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49개 사업

○ 센터별 사업 및 개소수가 상이하므로 상세 내역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4. 1. 2. ~ 1. 31.(30일간)

□ 신청방법

○ 방 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우 편 : 원본 서류를 동봉해 우편 발송(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이메일 :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 발송(현장심사일까지 원본서류

(한라일보: 2024년 1월 8일)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6면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49개 사업

• 센터별 사업 및 개소수가 상이하므로 상세 내역 확인 필요

○ 신청기간: 2024. 1. 2. ~ 1. 31.(30일간)

○ 신청방법

• 방 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우 편: 원본 서류를 동봉해 우편 발송(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이메일: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 발송(현장심사일까지 원본 서류 제출 필, 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ju.go.kr>) 참고

[문의] 제주농업기술센터 760-7711~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760-7811~3

동부농업기술센터 760-7611~3

서부농업기술센터 760-7911~3

1.8.
한라일보 6

(한라일보: 2024년 1월 8일)

○ 노지감귤 가격 오름세... 월동채소 '고전' -6면

노지감귤 가격 오름세... 월동채소 '고전'

1만6000~7000원대이던 감귤 5kg, 6일 2만2338원에 거래
무·양배추 값 내림세... 당근 하락세 이어지다 소폭 반등

2023년산 노지온주 경락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KAMIS)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가락시장에서 노지온주 감귤 상품 5kg 한 상자는 평균 2만2338원에 거래됐다.

서울 가락시장 노지온주 상품 5kg 경락가는 지난해 12월 29일 2만377원에서 30일 1만6701원, 지난 3

일 1만7300원, 4일 1만6635원으로 등락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5일 1만8679원에 이어 6일엔 2만1338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12월 말~1월 초 사이 서울 가락시장 노지온주 5kg 한 상자의 경매가는 1만1400~1만8000원 사이에 거래됐었다.

노지온주 감귤 소매가격도 소폭 상승했다.

지난 5일 전국 주요 시장·대형마트에서는 중간크기 노지온주 감귤 10개가 평균 4318원에 판매됐다. 한 달 전에는 3544원에 팔렸었다. 평년에는 2906원에 팔렸다.

제주산 월동채소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제주산 월동무 상품 20kg 한 상자는 6일 9005원에 경락됐다. 지난해 12월 28일 1만3801원에서 29일 1만3569원, 1월 3일 1만334원, 4일 9502원, 5일 9657원에 이어 6일엔 9005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9900~1만

3300원 대에 거래됐었다.

제주산 당근 상품 20kg 한 상자는 6일 2만2744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27일 2만6077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 5일(2만1947원)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다 소폭 반등했다.

당근 20kg 한 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00~5만100원 선에 거래됐다.

양배추 상품 8kg 한 망대는 지난 6일 4534원에 경락됐다. 지난 5일엔 4719원에 경락됐다.

현영총기 **1.8.** 한라일보 6.com

(뉴제주일보: 2024년 1월 8일)

○ 겨울감자 수확-4면



1.8. 뉴제주일보 4

겨울감자 수확 7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한 밭에서 농민들이 겨울감자를 수확하며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